

축 사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개막을 100일 앞두고,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국민 대통합 기념식 및 대장경 이운행렬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려대장경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기록문화 유산으로 규모와 내용, 그리고 형식에서도 동아시아 문명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은 그 조성을 시작한 지 올해로 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바라는 선조의 의지와 염원이 스며있는 고려대장경은 천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왔습니다.

역사적인 천년을 맞아 오늘 우리는 고려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고려대장경 제작과 보존을 위해 땀 흘린 선조들의 노고를 마음 속 깊이 기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 현재에도 생생하게 실현되는 것에 크게 감동하고 후손에게도 길이 보전하고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을 기원하는 이운행렬은 어제 해인사에서 봉행한 고불식을 시작으로, 오늘은 인사동길, 종로2가, 청계2가를 거쳐 청계천로 광통교로 이어지며, 내일은 개경포 의식과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봉안의식으로, 3일에 걸친 대장정을 봉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천년의 신비를 품고 있는 고려대장경의 ‘지혜’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려대장경이라는 문화유산이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인사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올해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 동안 해인사와 그 인근에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대장경의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전시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 즐거우면서도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합니다. 전 불교계가 동참하여 축전의 성공을 기원하고, 고려대장경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해인사와 경상남도, 합천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올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성공적으로 봉행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의 공덕이 대장경의 의미와 함께 불자와 국민에게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